

國語教育에서 改正되어야 할 用語들(Ⅱ)

최 카 일*

I.

1.1. 필자는 평소 우리 국어 교육에서 用語[또는 명칭]의 뜻과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시되는 것들이 많음을 보아 왔다.

흔히 '歷史'라고 말할 때, 원래 '史'는 과녁에 적중한 화살의 수를 계산하거나 기록하는 사람을 가리켰는데, 그것이 轉義되어 記錄者가 된 것이라 한다. 그러므로 역사에서 중요한 관건은 역사의 기록이 ① 褒貶의 기록이나, ② 歪曲된 기록이나, ③ 史實대로의 기록이나가 重視된다.

그런데, 우리의 한국사를 볼 때, 한국사를 다루는 사람들의 歷史觀이 때로는 獨自性이나 主體性을 잃고 歪曲 記述된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역사의 기록에서 그 기록되어 있는 하나의 用語¹⁾ [또는 명칭]를 놓고, 그 용어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여 이해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에 부닥치곤 한다.

※ 이 글은 국어학회 제13회 공동 연구회(1987. 1. 16~18.)에서 '바뀌어져야 할 用語들'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

本稿는 지면 사정상 2회로 발표된다. 前篇(Ⅰ)은 李炳統 博士 回甲記念論叢에 발표되었으며, 그에 이어서 (Ⅱ)는 본 논문집에 발표됨을 밝혀둔다.

- 1) 用語와 述語, 이 둘의 관계는 언어 현상에서는 구별되지만 흔히 混用하고 있다. 어느 학술상의 전문 분야에 限定해서 쓰이는 述語도 일상 언어생활에서 두루 보편화되어 쓰이면 用語가 된다. 그래서 述語가 어느 특수 분야에 한정되어 쓰인 단어만큼 좁은 의미의 特殊語라 한다면, 用語는 광범위하게 두루 보편적으로 쓰이는 넓은 의미의 一般語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用語: 일상 생활 분야에 두루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 a term

[術語: 학술상 어느 전문 분야에 한정된 뜻으로 국한해서 쓰는 말, a technical term, scientific terminology

* 師範大學 助教授

더군다나 하나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에는 그 사건을 보는 주체자[주인]가 누구냐에 따라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개념 규정의 용어가 달리 記述되기도 하고, 또 그 사건에 관련된 용어를 주체자 측에서 그에 맞는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나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1.2. 한국사의 현실을 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中國을 宗主國으로 떠받들던 事大主義史觀을 <中毒>이라 하고, 일본 군국주의의 植民地史觀 또는 皇國史觀을 <倭毒>이라 하고, 광복 후 서구의 영향으로 이룩된 서양사관을 <洋毒>이라 표현하여, 韓國史의 構造를 <中毒+倭毒+洋毒>의 三毒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사는 소위 主體인 ‘나’를 잃어버린 自我喪失의 歷史 내지 머리 없는 역사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현재 한국 古考學界가 쓰고 있는 地表나 年表마저도 일본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고고학적 자료나 학문적 역사 자료들은 모두 지난날의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이룩된 것들이다. 이들 중 일본인들에 의해 歪曲·날조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찌 이러한 일들이 고고학이나 역사학에서만 있었겠는가? 우리 국어학 분야에 있어서의 용어 문제도 그 예외는 아니다.

1.3. 本稿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 특히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이 땅을 統治 支配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歪曲·날조·은폐하여 만든 日本式 用語들을 中心으로 살피고자 한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러한 용어들을 버리지 못하고 慣行대로 맹목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이는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일본어를 國語로 사용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戒律로써 일본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하면서, 모든 학문과 생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를 統治·支配하기 위해 조선어 말살 정책을 자행하면서 철저하게 식민지 정책의 교육을 시켰던 것이다. 여기 필자가 다루는 용어들은 그 때 일본인들이 만든 식민지 시대의 產物인 것이다. 소위 日帝 植民地 政策의 殘滓인 것이다. 그 殘滓를 拂拭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日本式 用語들은 우리 국어교육에서 마땅히 추방되어야 한다. 우리 역사를 歪曲·조장하여 이 땅을 통치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식 용어들은 이번 기회에 마땅히 改正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 국어의 많은 용어들 중에서 일본식 한자어는 한국식 한자어나 우리말로 고쳐 사용하자는 것이다. 언어가 꼭 논리에 符合하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사실에 부합된 표현의 용어를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II.

인간의 언어 생활에서 한 개인이나 그 나라 국민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를 보아 그 사람의 정신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言語가 인간의 觀念이나 思考方式 내지 精神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영국인은 他國語의 人名이나 地名 등의 고유명사라도 영어식으로 발음한다. 예컨대 그 리이스의 大詩人 ‘호메로스’를 ‘호머’라 부르며, ‘플라톤’을 ‘플레이토’[pleito]로 부르고, ‘Deutschland’를 ‘Germany[dʒé:rməny]라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국인들은 거의 모두 로마화된 라틴어의 이름[명칭]을 영어식으로 바꾸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영국이

自國의 투철한 국어의식 내지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을 獨自的으로 다루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오늘같이 급변하고 격동하는 세계에서 한국인이 민족적으로 自立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사의 民族自主史觀을 정립하겠다는 정신이 앞서야 한다. 筆者는 그 一環으로 日本式的 用語들은 우리 중심의 용어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1. 韓半島 → 大韓民國, 韓國
2. 檀君神話 → 檀君王儉(인물), 檀君朝鮮(역사)
3. 李氏朝鮮, 李氏王朝, 李朝, 李朝語 → 朝鮮時代, 朝鮮王朝, 朝鮮, 朝鮮語.
4. 日帝 植民地 時代 → 日本 軍國主義 時代, 民族抗日期
5. 開化期 → 自強[疆]期
6. 甲午更張, 甲午改革 → 甲午亡兆, 甲午抑鬱
7. 1945. 8. 15. 解放 [乙酉解放] → 1945. 8. 15. 光復 [乙酉光復]²⁾

8. ‘韓日合邦[併]’ 용어 문제

‘韓日合邦[併]’이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합했다. 또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나란히 [아울러] 합쳐졌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한일합방’이란 말은 “한국이 앞장 서서 일본과 사이 좋게 나라를 합했다”의 뜻을 지니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1910년(庚戌年) 8월 22일에 일본은 한국이라는 나라이름마저 빼앗아버리고 말았다. 이 한일합방으로부터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의 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때의 史實을 잠깐 언급하면, 이완용[내각총리대신], 이재근, 조중응, 이병무, 고영희, 임선준, 송병준 등 7인은 1910년 8월 22일에 자기 나라의 이름마저 없애는데 찬성 도장을 찍어서 일본에 넘겨주었다. 이 7인을 가리켜 賣國奴, 庚戌七賊이라 한다. 그들은 일본의 귀족으로 흡수되어 爵位를 받고 자손 대대로 부귀를 누릴 것이라는 보장과 일본 천황이 주는 恩賜金을 받게 된다는 계약하에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사실이 이렇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교활·간교하게 ‘일본과 한국이 합한 것’이라는 용어[韓日合邦]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인을 속이려고 했다. 그러한 생각 끝에 만들어낸 용어가 ‘韓日合邦’, ‘韓日合併’ 또는 ‘日韓合邦’이다.

이 때 일본인들이 내 놓았던 문서 제목이 소위 ‘合併條約’이었다. 이 합병조약은 1~8 조항의 합의조약이었다. 이 調印의 記者는

明治 43년 8월 22일 통감자작 寺內正毅

隆熙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李完用으로 되어 있다.

이 ‘併合條約’ 뒤에 일본인들이 말하기를 “나라가 합한 것”이라 하면서 처음에는 교활하게 ‘併合’이라 했다가 뒤에 가서 서서히 ‘合邦’이라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여중동, 1986 : 92-97) 천지개벽 이래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이 좋게 합쳐진 예가 없다. 그래서 ‘合邦’ 또는 ‘合併’이라는 말은 양국가 간에 있어서는 해괴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2) 以上 1~7까지의 용어 문제에 대해서는 前篇[I]에서 다루었으며, 本稿는 그 後篇[II]으로 다루어 나가하고자 한다.

만약 일본인들의 논리대로, 1910년 8월 22일의 사건이 ‘韓日合邦’ 이었다고 한다면, 1945년 8월 15일의 일은 ‘韓日分離’라고 불러야 논리에 맞게 된다.

하야간 이같은 사실로써, 우리 한국측에서 볼 때는 1910년 8월 22일은 ‘國恥’ 또는 ‘國亡’이 된다. 그래서 ‘韓日合邦’이란 用語 대신 ‘경술년에 일어났던 나라의 부끄러움[또는 나라 망함]’이란 뜻의 ‘庚戌國恥’ 또는 ‘庚戌國亡’이란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9. ‘丙子修好條約[規]’, ‘乙巳保護條約’의 用語 문제

‘修好’라는 말은 “잘 지내기 위하여 닦아나간다”는 뜻이고, ‘條約’은 일본식 漢子語다. 1876년(丙子年)[고종13]에 일본은 남의 나라 항구인 인천을 빼앗고도 “앞으로는 서로 잘 지내기 위함”이라고 하니, 日本人들의 간특·교활함을 일컬자면 오직 ‘알미움’ 뿐이다. 日本은 소위 이 ‘丙子修好條約’을 두고 ‘修好條規’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조선 민족을 속여왔던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修好條約’이 아니라 일종의 ‘첩탈문서’인 셈이다. ‘修好’라는 말이 일본측에서의 용어라면 ‘劫奪’은 한국측의 통행어이다. 이 ‘修好’라는 말은 일본인이 식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선 땅을 빼앗을 때마다 사용되어져 왔다. 그리하여 소위 丙子修好條約은 日帝 植民地化의 제1단계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1905년[乙巳年. 고종 42년] 9월 15일에 伊藤博文이 초대 統監이 되어 조선을 다스리게 되었다. 서울 남산 밑에 統監府를 두어 통감부가 하는 일을 곧 ‘保護政治’라 했다. 그리고 乙巳年 九月에 있었던 ‘協商書’를 日本人은 ‘保護條約’이라 퍼뜨렸다. 정말 이 ‘보호’³⁾라는 말에 어안이 빙빙하다. 우리 한국측은 이 ‘보호조약’을 ‘勸約’[늑약; 억지의 약조란 뜻]이라 부르면서 倭奴의 통감부를 ‘倭城臺’라고 불렀다고 한다.(여중동, 1986: 88~89)

1904(甲辰年). 2.23. ~1904. 9. 24. 사이에 한국은 일본의 충고를 받아들이라는 협박문서를 일본인들은 ‘韓日議定書’라 했다. ‘議定書’란 ‘政治를 의논해서 정하는 문서’라는 뜻인데, 한국은 일본의 충고를 받아들이라는 이 협박문서를 소위 ‘韓日議定書’라 하니, 참으로 해괴한 用語가 아닐 수 없다.

이 ‘韓日議定書[協定書]’에서는 ①일본 고문관 伊藤博文이 한국을 통치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협정서’라고 했다. ②한국 정부에 일본 고문관이 앉아서 결재하게 되었다. 이 때 도장 찍은 자가 尹致昊다.

이러한 내용의 ‘한일의정서’는 1904. 2. 23.(고종41)~1904. 9. 24. 사이에 있었던 일본 고문관 정치의 협박서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한국측에서 볼 때는 甲辰年의 일본 忠告受諾書인 셈이다.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계 記述 가운데 본격적인 事實을 歪曲·날조한 부분은 1904년 2월에 있

3) 日本人 金澤庄三郎(1910)의 ‘日韓兩國語同系論’이란 글의 결론 부분에서 이 ‘保護’란 용어 표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我保護國인 韓國이, 그 언어에 있어서도 역시 我國語의 一方言이며, 분명히 同文同語의 나라라는 사실의一斑을 提示하여...”, “마침내 古代에 있어서와 같이 다시 同化의 實을 거둬에 이른다면 進정 天下의 慶事라고 할 것이다.”

이 日本人 金澤庄三郎의 불순한 전견은 통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李基文(1973: 15), 註 15. 참조.

있던 ‘韓日議定書’를 강제로 체결한 이후부터 1945년까지에 걸친 시기이다.

新編日本史 p.195의 ‘日韓併合’이라는 항목에서 ‘日露戰爭 直後の 1904년 2월 일본은 한국과 ‘日韓議定書’를 맺어 한국 영내에서의 일본군의 자유행동을 인정 받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들이 당시 韓日議定書를 맺으려는 의도는 對露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였다. 그 내용은 일본의 시정 개선을 받아들여야 하고, 군사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정치·군사적 간섭을 합리화하도록 허용한 것이었다.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인 협정인데, 어찌보면 강제적이고 위협적으로 맺어진 협정인 것이다. 일본은 京釜·京議 철도를 군용화하여 탈취하고, 철도부설을 완성함으로써 對露戰에서의 승리를 위해 수송상 최대한의 편리를 도모했던 것이다. 이 한일의정서는 외견상 간단한 것 같으나 일제 침략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자못 크다.

그리고, 소위 乙巳保護條約의 체결로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接受’하였다고 했다가 ‘일본의 손에 넣고’로 고쳤으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는 분명히 한국 外交權의 ‘奪取’, ‘약탈’, ‘강탈’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실상 우리는 國權을 탈취당한 것이다.

우리의 近代史에서 1910년의 ‘한일합방’과 ‘乙巳保護條約’은 탈법적이고 강압적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무효임이 이미 선언되고 인정되는 단계에 있다고 한다.⁴⁾

그러므로, 이러한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져야 한다.

丙子修好條約 → 丙子劫奪約條

乙巳保護條約 → 乙巳勒約/乙巳約條

韓日議定書 → 甲辰倭亂脅迫書/日本忠告受諾書

10. ‘東學亂[東學黨의 亂]’의 용어 문제

전봉준(1854~1895)을 지도자로 한 東學軍은 1894.2.15.에 전남 고부에서 民亂이 일어났다는 狀啓를 받았는데, 이것이 이른바 東學亂이다. 이 때 동학군의 주장은 “民이 國家의 根本”이라는 것이었다.

東學은 조선 말기에 새로 들어온 西學, 즉 기독교에 대항하여 생긴 것이다. 이 때 東學을 일으킨 崔水雲은 조선 말기에 國政 문란과 외국 침략 세력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天道敎라는 신종교를 개설한다. 이 천도교는 ‘氣’를 곧 天主로 보고, 그 氣를 받은 사람을 天主와 동일시하여 사람이 곧 神이라는 人乃天 사상을 주로 했다. 그런데 이 天道敎는 ‘氣’ 사상을 근거에 깔고 있는 東學을 그 모태로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安民과 민족통일이라는 고귀한 人乃天 사상에 입각한 우리의 民衆運動을 일본인들은 민중의 叛亂이라 규정하여 ‘東學亂[東學黨의 亂]’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반봉건운동과 민중 구국 항일 투쟁이 큰 흐름으로 작용한 동학혁명은 우리 近代史에서 최초로 경험한 서민의식의 성장인 民衆革命의 승리였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 전개된 3.1.萬歲義學 등 민중구국운동의 기원을 여기서 찾고 있는 것이다. “民은 國家의 根本”이라고 한 東學軍은 外勢를 배격하고, 민족 주체 의식을 강조하는 선명성을 보였다.

4) 李炫熙(1986), 日敎科書 歷史歪曲을 고발한다(上, 中, 下), 동아일보 1986. 7. 14~16. 기사 참조.

따라서, 우리의 민중 구국 항일 투쟁인 東學革命을 하나의 叛亂이나 혼란·무질서 등으로 간주하는 일본인의 자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시민혁명과 비견되는 우리나라의 민중혁명⁵⁾인 것이다.

그래서, 東學亂[東學黨의 亂]→東學革命/갑오농민전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11. '3·1. 운동'과 '3·1. 節'의 용어 문제

1919년 3월 1일은 고종임금 因山日이었다. 이 날을 기해 전국 곳곳에서 자주 독립을 외쳤던 것이다. 소위 이 때의 3.1. 운동은 3월 1일의 운동만이 아니다. 아무리 좁혀 잡아도 1919.(己未年) 3.1~5.31까지의 약 3개월 간에 걸친 우리의 자주 독립의 외침이었다. 그 당시 3.1.운동은 日本軍을 물러가게 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우리 민족의 평화적 시위로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세계에 선포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이 아닌 東學革命의 輔國安民의 救國精神과 人乃天이라는 인간성 회복과 자주독립의 의식이 內在的으로 성숙 발전된 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우리의 최대의 성과는 中國 上海에 우리의 정통 민주공화 정부인 大韓民國臨時政府가 수립되어 1945년까지 國內外를 統轄·統治하는 국가적 기능을 수행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3.1.운동은 단순한 운동의 차원에서 벗어나 민주혁명으로 승화시켜야

- 5) 여기 民衆革命과 관련하여 '民衆'이란 용어의 개념을 똑바로 이해했으면 한다. 民衆은 전통사회의 '百姓'도 아니고, 近代史 문턱의 불특정된 '大衆'도 아니고, 자본주의의 주체인 '市民'과 대치되는 개념에서 성립한 '人民[프롤레타리아]'도 아닌, 한국사에서의 특수한 존재인 것이다. 즉, 홍경래란이나 삼남민란(1862) 등에서 어떤 탈출구를 찾는 개혁운동의 主體人인 특정세력이었다. 한국 근대 민족주의 운동의 주체자인 특정 세력이 곧 '民衆'이다. 신채호는 그의 '조선혁명선언문'에서 '인민'이란 용어를 노예상태의 경우라 하여 배제하고, 혁명의 주체로서 '민중'을 내세웠다. 그리고 8.15 광복 후에는 '인민'이 북한의 특수 용어로 사용되면서 '민중'이란 말도 기피하게 되었고, 그 대신에 '大衆'이란 말이 크게 쓰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 '민중'이란 말이 다시 솟구쳐 1980년대에는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여간에 '民衆'은 한국민의 특수한 존재인데, 그것은 독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체로서 한국 근대사에 있어 근대 민족운동의 주체자이다. 근대민족 운동의 주체자라면 세계사에서 볼 때는 '市民'이 주체가 된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특수 사정으로 '민중'이 주체가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본다.

- 百姓: 왕이 통치하는 王權時代의 국가의 통치관계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 즉 被治者를 뜻함.
- 國民: 대통령이나 수상 등이 다스리는 민주시대의 近·現代의 개념.
- 市民: 행정 구역상 市에 거주하는 사람.
- 人民: ① 좁은 뜻: 사회주의 이론에서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서 자본계급과 대치되는 단어
② 넓은 뜻: 중국 고전에 나온 말로 '백성'과 같은 뜻으로 혼용하고 있었다.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사용한 '인민'이라는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사용되었다.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 大衆: 원래 '衆生'과 더불어 불교에서 나온 말이나 근대에는 프랑스에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1848년 2월 혁명을 전후하여 부상한 제4계급을 통틀어 일컫는 말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民衆'이란 말에 밀리고 말았다.
- 民衆: 한국 근대 민족주의 운동의 주체자인 특정세력의 특수한 존재이다. 사전적 풀이는 ① 많은 사람의 무리, ② 모든(다수의) 국민을 뜻한다.

趙東杰(1986), 韓國現代民族主義와 民衆의 역할. 신동아 통권 323호, 1986. 8월호 참고.

하는 것이며, 東學革命 이래 가장 성공한 우리 민중 역사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다. [李炫熙 (1986) 참조]

그런데, 新編日本史 p.202에는 3.1.운동 자체가 무력 진압을 불러 일으켜 流血 慘事를 빚었다고 하여, 일본은 ‘3.1.소요사건’, ‘3.1.사건’, ‘3.1.폭동’ ‘萬歲事件’ 등의 ‘소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 민족적 일체감이 담긴 민주통일정신의 함성·절규의 독립운동을 과소 평가하고, 이를 輕微하고도 야만적인 소요, 혼돈, 무질서의 일시적 亂動 정도로 가볍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처사이다.

이 3.1.운동은 말하자면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말일까지 전개됐던 우리 온 국민의 義擧였기에 ‘己未萬歲義擧’라 부름이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가 10월 3일을 ‘10.3.節’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開天節’이라 하듯이 1919.3.1을 일러 ‘3.1.節’이라 할 것이 아니라 ‘己未萬歲節’이라 불러야 마땅하다.(여증동, 1986:100~103)

이러한 면에서 ‘1919.3.1.운동’과 ‘3.1.節’은 각각 ‘己未萬歲義擧’와 ‘己未萬歲節’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다.

12. ‘6·25.事變’과 ‘6·25.動亂’의 용어 문제

우리는 1950년(庚寅年) 6월 25일의 역사적 사건을 일러 흔히들 ‘6.25.事變’이니 6.25.動亂’으로 불러 왔다.

‘事變’이란 ‘조그마한 變動’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1950.6.25.에 북한 괴로군이 남침하여 사람을 죽이는 동족상쟁의 전쟁을 일으켰다. 이같은 중대한 사건을 두고 우리가 ‘事變’이라 하면 격에 맞지 않는다. 이 중대한 사건을 흔히 우리는 일본식의 용어인 ‘6.25.動亂’이니 ‘6.25.事變’으로 써 왔다. 이는 잘못이다. 역사적 사건을 이름짓는 데 있어서는 그 역사적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놓고 그에 맞추어 주체자 중심의 용어를 지어야 하고, 또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이치다.

이 날은 북한이 남한을 침입한 것으로 北韓 南侵日이 된다. 그리하여 전쟁이 되었다. 그러니 1950.6.25.은 ‘6·25.전쟁’ 또는 제3자 측에서는 ‘한국전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動亂’은 日本式 한자어이며, 韓國式 한자어는 ‘亂動’이 된다.

앞으로는 ‘6·25.動亂’, ‘6·25.事變’이란 말은 ‘6.25.전쟁’ 또는 ‘한국전쟁’으로 바꾸어 불러야 할 것이다.

13. ‘郡·師·父一體’의 용어

‘君·師·父一體’란 임금과 스승과 부모[특히 아버지]는 서로 같이 부를 만큼 거룩한 위치의 분들이라는 말이다. 모두 같이 거룩한 분들임을 나타내어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 ‘一體’란 말을 함께 붙여 사용했다. 임금을 섬기는 것이나 스승을 모시는 것이나 부모를 섬기는 근본 마음씨는 똑 같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君·師·父一體’라는 말이 생긴 저의는 그것이 아니다.

左氏 僖公과 漢書 劉向傳에 보면,

君父之命 不校 [左氏, 僖公, 五年]

奉安君父 忠孝之至也 [漢書, 劉向傳]

로 적혀 있다.

이 기록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일찌기 임금[君]과 부모[父]를 같이 우러러 보았지, 君·師·父 셋을 같이 보지는 않았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셋을 함께 ‘一體’로 보았는가 하니, 소위 日帝 植民地 시대의 일본인에 의한 교육의 탓이다. 倭政 때 植民地 政策의 一環으로 조선어 말살 정책을 자행하면서 조선어 사용을 금하고 日本語를 모국어로 사용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일본인 선생들이 교육을 하게 되었다. 이 때 일본인 교사나 일본어를 가르치는 한국인 선생을 대접해 주면서 그 권위를 세워 주기 위해 ‘君·師·父一體’란 용어를 만들어,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다같이 우러러 받들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 아닌가 한다. 그 결과 일본인들은 그 당시 그들의 철저한 식민지 교육을 시켜 植民地政策을 수행해 갔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君·師·父一體란 말의 사용은 일제 식민지시대의 교육의 탓이다.

이러한 일본인의 底意가 깊이 숨어 있는 용어인 만큼 ‘君·師·父一體’란 일본식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14. ‘師範大學’의 용어 문제

漢字에서 ‘師’의 원래 뜻은 군대 용어인 ‘師團’이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군대의 단위’를 뜻하는 것이다. 周나라 때 軍制로 2,500명의 군 집단을 ‘師’라고 불렀다 [周禮, 地官小司徒]. 그래서 ‘師’는 軍隊集團의 2,500명의 군사 단위다. 그리고 대개 군사적 지도자나 樂官과 같은 官職에 ‘師’자가 잘 쓰인다. [師團長, 樂師, 律師 등].

그리고 ‘師’의 뜻으로는 ① 스승, ② 남의 모범이 될 만한 훌륭한 사람, ③ 스승으로 본받을 사람, ④ 전문적인 技藝를 가진 사람 등이 있다. 이 ‘師’字를 訓讀했을 때의 ‘스승’은 본래 ‘巫卜’ 곧 ‘무당’을 의미하던 말이다.

“次次雄 或云慈充 金大問云 方言謂巫也 世人以巫事鬼神尚祭祀 故畏敬之 遂稱尊長者爲慈充”(三國史記 卷一, 新羅本紀)

(次次雄 혹은 慈充이라고 한다. 金大問은 말하기를 이는 方言에 무당을 이르는 것으로, 사람들은 무당이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받드는 까닭에 이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므로 드디어는 尊長者를 일러 慈充이라 하였다.)

이 기록으로 보아 신라시대에는 ‘스승’[次次雄, 慈充이 ‘스승’의 轉借語]이란 ‘巫卜’을 뜻하던 말이나, 畏敬의 대상이어서 마침내 ‘尊長者’를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스승’이 뒤에 ‘和尚/僧’ 또는 ‘先生’, ‘師傅’를 이르게 된 것이다.⁶¹⁾

‘스승’이란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 주는 사람을 말한다. ‘先生, 師傅, 函丈(함장)’ 등의 동의어가 있다.

6) 朴甲洙(1984), 우리말의 誤用과 醇化, 한국방송사업단, 참고.

그리고, ‘先生’⁷⁾은 管子 弟子職의 ‘先生施教 弟子是則’에 보이듯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論語에는 ‘父兄’이란 뜻으로도 쓰였으며, ‘有德者’, ‘年長者’, ‘退官’, ‘隱居의 老人’을 이르기도 하던 말이다. 그리하여 ‘先生’은 ① 스승, ② 학예에 능한 사람, ③ 敎員에 대한 일컬음, ④ 나이나 학식이 많거나 그 이상인 사람에 대한 일컬음이다.

그리고, ‘스승’, ‘선생’의 의미인 ‘師’에다가 ‘範’字를 붙여 ‘師範’이라 하면 그 뜻은 ‘스승으로서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 또는 ‘선생(스승) 중의 모범이 되는 선생(스승)’이란 뜻이 된다. 字義로는 최고의 좋은 뜻을 지닌 말[師範]일지는 몰라도, 그런 의미의 ‘師範’이란 인물은 현실적으로 實·存在할 수도 없다.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있으나 스승은 없다”거나 “학생은 있되 제자는 없다”는 말은 직업인으로서의 敎員은 있으나 師表가 될 만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뜻 이외에도 체육에서 운동경기의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을 일러 ‘사범’이라고도 한다. [유도 사범, 태권도 사범 등]

일본이 이 땅에 설치한 통감부는 식민지 교육의 기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1895년 2월에 고종임금이 전국민에게 ‘教育立國’의 詔書를 내렸는데, 이 교육입국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1895년 4월에 먼저 ‘敎員養成’을 목적으로 하는 漢城師範學校 官制를 公布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학교 법규가 되는데, 이러한 학교 官制는 소위 1894년 甲午更張, 甲午改革의 그 자체가 일본의 탄압과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인만큼 일본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 1895. 4. 16. 漢城師範學校官制

◎ 1906. 師範學校令 勅令41號 公布⁸⁾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인이 그 당시 조선어를 말할하려고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치기 위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주로 일본인 교사]을 선생 중에서도 모범이 되는 훌륭한 선생[師範]이라고 하여 그 권위를 세워 잘 보이려고 한 底意가 곁들어 있던 말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이 ‘師範’이란 용어도 ‘君·師·父一體’와 1관가기로 바로 일본 군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한 때에 생긴 산물의 용어로서 일본인이 지어낸 것이다.

이미 굳어져서 오래도록 애용해 온 ‘師範大學’이란 말은 우리식의 우리말 이름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할 것이다. 비록 요 근래에 문교부가 ‘敎員’이란 우리식의 용어로 이름을 지은 ‘敎員大學’이 생겼지만, ‘師範大學’이라는 명칭의 용어는 改正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15. ‘派出所’의 용어 문제

‘派出所’란 말의 뜻은 “경찰서 소재지 안의 지정된 관할 구역의 치안을 맡아 보는 순경(巡警)이 파견되어 있는 곳[이회승, 국어대사전]”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뜻으로 굳어져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다들 알고 있다.

7) ‘先生’의 출처는 ① 韓詩外傳에 의하면, ‘나보다 먼저 나서 道를 깨친 사람’[古者謂知道者曰先生, 猶言先醒也]으로 되어 있고, ② 史記에 의하면 ‘毛先生以三寸舌 覆於百萬之師’라 하여 敬稱으로 쓰고 있다.

8) 손인수(1985), 교육사·교육철학 연구, pp. 366~368, 참고.

그러나, 이 ‘파출소’란 이름도 실은 일본 군국주의가 우리에게 남겨준 산물이다. 현재 일본에서도 ‘○○○派出所’란 간판이 적혀 있고, 또 그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 1987.2.26.(토)자 동아일보의 <독립운동 새 자료 찾아>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당시 만주 安東에는 임시정부[상해]의 연락 책임을 맡은 交通局과 財務派住所가 설치돼 있어 국내로부터 자금의 모금과 애국지사 규합 등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만주 안동의 임시정부 財務派住所 宋참사에게 맡겨 놓았다.”

등에서 ‘派住所’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이 용어는 그 당시 광복군인 우리 한국인이 사용한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일본 군국주의의 뉘앙스가 물씬 풍기는 ‘파출소’란 용어 대신에 우리 한국인이 쓴 ‘派住所’ 또는 ‘駐在所’란 말로 바꾸어 사용했으면 하는 것이다.

16. ‘母國語’의 용어 문제

‘母國語’란 말도 일본 군국주의가 만든 소위 日帝 植民地의 產物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은 우리 민족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하여 조선어 말살과 조선어 문자 말살 정책을 강행하였다. 1910년부터 시작하여, 일본어를 국어로 상용하도록 하고, 1930년대에는 학교에서 조선어 교육과 조선어 사용을 엄금하였으며, 1931년부터는 일상생활에서의 조선어 사용을 금하고 일본어를 母國語로 전용하도록 강요하였다.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는 국민에게 국가 권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統治·支配하기 위해 일본 군국주의가 모든 권력을 지고 있었다.

‘母國語’란 개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말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가이며 어머니가 아니다. 모든 권리가 국민이 아닌 국가가 쥐고 있던 그 당시 일본 군국주의는 ‘母國語’란 말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말을 처음 배울 적에 국가로부터 배운 사람은 없다. 국어 시간을 통해 국어 선생님께서 배운 것은 표준어, 철자법, 정서표기법 등 규범 문법의 국어를 배운 것이다. 흔히 ‘mother tongue’를 ‘母國語’라 번역함은 잘못이다. 이는 ‘母語’로 번역해야 옳다. ‘母語’란 바로 자기 어머니에게서 배운 엄마말이란 뜻이다. [김용옥, 1986 : 25~27, 참조]

이제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가 만들어 낸 산물의 용어를 버려야 하겠다. 그리하여 母國語→母語(mother tongue)로 改正되어져야 한다. 이밖에도 많은 용어들이 있다.

以上에서 日本 軍國主義時代의 殘滓요 產物인 용어들을 통하여 볼 때, 일본은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해 의도적으로 날조, 美化, 誇張, 誇示, 은폐하여 歪曲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일본 교과서인 <新編日本史> [昭和62년(1987) 2월 20일 原書房 발행]의 우리 한국 관계 역사 기술 가운데 본격적으로 史實을 왜곡·날조·은폐한 부분에서 그 용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韓國進出 ← 日帝 침략
- 日韓併合 ← 庚戌國恥
- 日韓協約, 日韓議定書 ← 日本忠告受諾書, 甲辰倭亂脅迫書
- 東學亂(東學黨의 亂) ← 東學革命
- 安重根 壯士(소오시) ← 安重根 義士(志士)

※ 여기 '壯士'는 '건달'이란 뜻으로 卑下해서 붙인 칭호'라 함

- 이준 烈士의 密使 ← 이준 烈士의 特使
- 3.1. 사건, 소요사건, 폭동 ← 己未萬歲義舉
- 假政府 ← 大韓民國臨時政府
- 創氏改名 ← 倭式(일본식) 성명 강요

그 밖에도 關東大震災 때의 한국인 학살 사건, 강제 징병 등에 관한 인력 수탈 문제의 왜곡, 신사참배, 여자挺身隊 징발, 징용, 징병, 공출 헌납, 토지·식량 약탈, 일본어 강제 교육, 조선어 사용 금지 등 30여개의 크고 작은 항목에 걸쳐 우리 역사를 은폐·歪曲·날조하고 있다.

우리의 近代史 분야 중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日本의 '征韓論爭'이다. 新編日本史에서 日本은 조선이 淸國에 예속되었음을 강조하여 학생들에게 그릇된 한국관을 인식시켜 그들의 韓國植民地 침략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은 침략이 아니라 예전에 점령하였던 조선 땅을 되찾는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征韓論'⁹⁾은 임진왜란 이후 日人 학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朝鮮劣等論과 蔑視論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征韓論은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의 발상인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900여회의 國難이 있었는데 그 반수 이상이 일본의 침략 위협 분탕질에 의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 '征韓論'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의 본질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소위 식민지 시대 전후에 한국의 각 방면에 걸쳐 간교하게 침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용어를 쓰지 않았다. 그 대신 經營, 支配, 保護, 監督, 後援, 改革 등의 간접적인 표현 방식의 용어를 썼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 침략(탈)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

이 新編日本史는 天皇 中心의 철저한 皇國史觀에 입각해서 武士道[사무라이] 정신, 할복하는 자세로 우리 역사를 마구 난도질하면서 한국, 중국 등 과거 피해국의 상처를 건드려 놓고 있다. 일본은 다테마에[建前]와 혼네[本音]의 민족 근성을 가지고 있어서 自民族中心의 인 성향이 농후하다. 또한 응집력과 조직력이 강하다. '1억 불개미'의 총침략정책—皇都主義, 大國主義, 팽창심리—을 자국하는 못된 국가주의적 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新編日本史의 이러한 갖가지 歪曲 사실의 공통점은 어찌보면 '언어의 遊戲'로 한국인을 기만하고 위장된 善隣을 애써 보이려 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¹⁰⁾

한국에 대한 일제 식민지정책의 특징은 '민족말살정책'에 있었다고 본다. 民族이란 『인간의 언어, 지역, 혈연, 문화, 정치, 경제, 역사를 공통으로 하여 그 기초 위에서 공고히 결합되어 민족의식이 형성됨으로써 더욱 굳게 결합된 역사적 범주의 인간 공동체이다.』 이는 민족 구성의 요소들이다. 일제는 1910년 무력으로 한국을 침략하여 強占하고, 韓民族의 民族 구성 요소를 소멸시킴으로써 한국 민족을 지구상에서 말살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무력으로 韓民族의 국토(지역)를 빼앗고 주권(정치)을 빼앗아 소멸시켰으며 경제를 예측시켜 빼앗고 착취하였다.¹¹⁾

9) '征韓論'의 '征'字는 옳은 것을 위해서 나아가서 친다는 뜻이다.

10) 李炫熙(1986), 日敎科書 歷史歪曲을 고발한다(上, 中, 下).

新東亞(1986), '후지오 妄言' 韓日大討論, 신동아 통권 327호, 1986. 12월호, 참고.

11) 愼鏞廈(1986), 日帝 植民地 時代의 遺産, 신동아 통권 323호, 1986. 8월호, 참고.

Ⅲ.

言語에 있어 생활 양식의 변천과 문화의 교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용어[단어]가 생기게 되는 것은 자연 현상이요,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 국어의 역사는 漢字의 수입과 더불어 출발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漢字語의 증가에 편승하여 국어 어휘 체계가 복잡하게 변천되어 왔다. 우리 국어 어휘 속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를 그 起源的 系譜別로 가르면 ① 중국식 한자어, ② 한국식 한자어, ③ 일본식 한자어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일본식 한자어는 그 구조에 있어서 한국식 한자어나 중국식 한자어와 완전히 다른 점이 있다.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모두 한자를 음독하고 있고 한자어도 이 음독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일본은 다르다. 일본에서는 音讀도 하고 訓讀도 하여, 두 글자가 한 단어를 이루는 경우에 ‘教育’과 같은 단어는 두 글자 모두 音讀하는데, ‘拂込’ 같은 단어는 두 글자를 모두 訓讀한다. 이 경우 ‘込’字는 일본에서 스스로 만든 글자로서 訓讀만 하고 音讀은 할 수 없는 일본식 한자어이다. 이런 식의 ‘仕立, 積込, 見込’과 같은 일본식 漢字語는 우리 국어에서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어휘들이다.

일본은 새로운 과학 문명의 사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 동양의 회람·나전어인 漢字로써 命名의 재주를 피웠다. 많은 새로운 學術用語가 日人들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것은 나라를 잃었던 19세기말~20세기초의 한국에 별다른 비판없이 수용되어졌다. 1870년을 전후하여 일기 시작한 소위 開化의 첫 무렵에는 중국의 新制 漢字語와 한국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漢字語가 通用되었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일본식 한자어에 의해 많은 국어 어휘가 대체되었다.

15~19세기 : 고유어 → 한자어

19세기말 이후 : 고유 한자어 → 일본식 한자어[조선어 → 일본어]

그리하여, 19세기 후에 생긴 한자어는 대부분이 일본식 한자어[때로는 일본어]가 침투되어 대체되었다.

1945년 光復 후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퇴치운동이 일본어 안 쓰기, 국어정화운동으로 고조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일본어를 퇴치하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는데, 일본식 한자어는 아직도 그 많은 어휘가 알게 모르게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한자어는 이미 사용한 고유 한자어를 누르고 通用되는 경우가 많다.

相談, 納得, 生産高, 殘高, 役割, 敷地

靑負, 入口, 案内, 調印, 返禮, 內職

取引, 利子, 箇所, 取扱, 荷物, 拂込

世帶, 弱點, 毛布, 造花, 忌日, 主從

品切, 色染, 互角……

한때 倭色 一掃의 소비니즘적 國語淨化運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식 한자어[또는 일본어]가 殘存하고 있다는 것은, 69년간이나 統治했던 일본 군국주의 식민지 정책의 傷痕을

일깨워 주는 역사적 證據語(mots témoun)¹²⁾의 구실도 되거니와 一字一意的 강한 조어력을 바탕으로 한 漢字語들이 日本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言衆에 흡수되는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을 통한 일본식 한자어는 20세기초 일본 군국주의가 한국을 統治·支配하면서 나타났다. 우리가 日本式 한자어를 수용하게 된 것은 중국식 한자어의 수용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日本式 한자어 또는 일본식 용어는 우리의 自意가 아니라 일본의 강제에 의해 他意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조선어 말살 정책의 一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근본 차이가 있다.

문교부가 1948년 2월 15일 ‘우리말 도로 찾기’ 머리말에서 밝힌 방침은

- ① 우리말이 있는데 일본말을 쓰고 있는 것은, 일본말을 버리고 우리말을 쓴다.
- ② 우리말이 없고 일본말을 쓰는 것은, 우리 옛말에라도 찾아보아 비슷한 것이 있으면 이를 끌어다가 그 뜻을 새로 작성하고 쓰기로 한다.
- ③ 옛말도 찾아낼 수 없는 말이 일어로 씌어온 것은 다른 말에서 비슷한 것을 얻어가지고 새말을 만들어, 그 뜻을 작성하고 쓰기로 한다.
- ④ 漢字로 된 말을 쓰는 경우에도 일본식 한자어를 버리고 우리가 전부터 써오던 식의 한자어를 쓰기로 한다.

이 네 가지 방법 중 ①과 ④가 본고의 중심이 된다. 다음의 한국어와 일본어의 용어 對比를 통하여 일본식 한자어는 한국식 한자어나 한국말로 바뀌어져야 하겠다.

〈한국과 일본 用語 對比〉

일 본 식 → 한국 식	일 본 식 → 한국 식
1. 忘年會 → 送年會	11. 入口(이리구찌) → 於口, 들목(들어가는 데)
2. 相手(아이페) → 相對, 敵手, 맞편	12. 色色(이로이로) → 여러 가지, 갖가지
3. 曖昧* (아이마이) → 模糊, 不分明	13. 受付(우게스게) → 接受(處)
※ 일본식 ‘애매’는 우리말 ‘애매’와 뜻이 다름.	14. 打合(우찌아와세) → 議論, 協議, 相議
4. 赤字(아까지) → 缺損, 不足	15. 賈渡(우리와다) → 팔아 넘김
5. 案内(안나이) → 引導, 알림, 周旋	16. 繪具(에노구) → 彩色감, 彩料
6. 案内狀(안나이쵸) → 請牒狀, 招待狀, 通知書	17. 追追(오이오이) → 漸漸
7. 一生(잇쇼) → 平生, 한평생	18. 追越(오이꼬시) → 앞지르기
8. 一石二鳥(잇세끼니쵸) → 一舉兩得	19. 往往(오오) → 이따금, 종종
9. 一旦(잇당) → 한번	20. 外出(가이슈쯔) → 出他, 出入(하다), 나들이(하다)
10. 依頼(이라이) → 付託, 맡김	21. 階段(가이단) → 層階, 층층대, 階梯

12) 證據語(mots témoun)는 어휘 구조의 계보와 조직을 아는 데 필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열쇠어(mots clés)는 그 사회와 그 사회에서 이해되는 인간의 감정이며 생각들을 표현하는 어휘론적 단위다.

이 증거어와 열쇠어는 어휘를 통하여 한 시대의 사회적 구조를 설명하려고 안출해낸 두개의 개념이다.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p.107, 참조.

- 일본식 → 한국식
22. 回覽(가이랑) → 돌려보기
 23. 學友(가꾸유) → 同窓, 글동무, 글벗
 24. 貸切(車) (가시끼리) → 獨黃(車)
 25. 貸家(가시아) → 黃집(셋집)
 26. 個所(가쇼) → 군데
 27. 元金(강깡) → 本錢
 28. 干潮(간쵸) → 감물* (감에 든 물)
※ 뱃사람들이 쓰는 말로서 물이 썰 때에 아주
 줄아서 극한에 이르면 '감에 들었다'고 함.
 29. 觀點(간뎡) → 見解, 보는 점
 30. 願望(간보) → 所願
 31. 還歷(간레끼) → 回甲, 還甲
 32. 起案(스루) → 草案, 기안(하다)
 33. 器具(기구) → 연모, 연장, 그릇
 34. 生地(기지) → 감, 옷감
 35. 忌中(기쵸) → 喪中
 36. 記帳(기쵸) → 置簿(冊), 올림.
 37. 企圖(기도) → 計劃
 38. 氣分(기분) → 心氣, 기분
 39. 給仕(규지) → 使喚
 40. 供覽(교랑) → 보여드림
 41. 矜持(긴지) → 自矜, 자랑
 42. 組(구미) → 반, 패, 두레*(社)
 ※ 두레는 '社'나 '契'와 같은 뜻으로 시골
 에서 쓰는 말.
 43. 慶賀(게이가) → 致賀
 44. 計算書(게이산쇼) → 掌記
 45. 化粧(게쇼) → 丹粧(하다), 盛粧
 46. 結局(겟교꾸) → 마침내, 끝내
 47. 決裁(겟사이) → 裁決
 48. 玄關(겐깡) → 문간[門間]
 49. 現金(겐깡) → 맞돈, 직전(直錢),
 뉘돈(놓여 있는 돈)
 50. 見地(겐찌) → 見解, 보는 바
 51. 見物(겐부쵸) → 求景
 52. 見聞(겐뵙) → 聞見
 53. 貢獻(고우겐) → 이바지
 54. 交替(고우대이) → 交代, 번갈음.

- 일본식 → 한국식
55. 黑板(고꾸방) → 漆板
 56. 國防色(고꾸보쇼꾸) → 黃綠色
 57. 小使(고즈카이) → 使喚, 심부름꾼
 58. 言語道斷(겐고도단) → 기막히다,
 말할 수 없다.
 59. 裁斷(사이단) → 마름질
 60. 祭典(사이뎡) → 式典
 61. 祭(마쓰리) → 놀이, 굿, 제사
 62. 差出(사시다) → 내보내다, 내다
 63. 傘下(상가) → 麾下(위하), 系列(계열)
 64. 散步(산보) → 散策, 遶風, 거닐
 65. 志向(시쵸) → 意向
 66. 示唆(시사) → 暗示, 귀뜸
 67. 始終(시쵸) → 終始, 恒常, 늘
 68. 示達(시다쓰) → 通牒, 알림
 69. 品切(시나끼레) → 切品, 떨어짐, 다 나감
 70. 始末書(시마쓰쇼) → 願末書, 謝過狀
 71. 出頭(웃도) → 出席
 72. 照會(쇼우카이) → 알아보기, 알려주기
 73. 十人十色(쥬닌도아로) → 가지각색, 各人各色
 74. 申請(신세이) → 請願
 75. 親展*(신뎡) → 몸소
 ※ 편지 걸봉에 쓰는 말
 76. 新郎(신로) → 새서방, 신랑
 77. 新婦(신부) → 새댁, 새악시, 신부
 78. 脆弱(제이자꾸) → 약한, 부실한
 79. 世帶(세따이) → 家口, 食口, 살림
 80. 世帶主 → 살림주인, 집주인
 81. 誓約(세이야꾸) → 다짐, 서약
 82. 煽動(센도) → 衝動
 83. 染料(센료) → 물감
 84. 相互(소오고) → 互相,
 85. 相談(소당) → 面談, 議論, 문의
 86. 相場(소바) → 市勢, 時勢
 87. 立場(다찌바) → 處地, 位置(선자리)
 88. 假令(다또에) → 設使, 設或, 設令
 89. 着手(짜꾸슈) → 손대기, 始作
 90. 提防(데이보) → 防禦, 둑, 防축

일 본 식 → 한 국 식

91. 當分間(도분간) → 얼마간, 얼마동안, 아직.
 92. 土臺(도다이) → 地臺, 基盤, 기본바탕
 93. 取扱(도리아쯔가이) → 다룸, 다루기, 처리
 94. 取扱所 → 處理所, 다룸곳
 95. 取締(도리시마리) → 團束(하다)
 96. 荷主(니누시) → 집주인, 집 임자
 97. 人夫(닌부) → 일꾼, 짐꾼
 98. 配給(하이규) → 노나주기, 태움*
 ※ 태우다: 의무적으로 혹은 동정적으로 갈라 주다.
 99. 配給所 → 노나주는 곳, 태움 곳, 태움집
 100. 場所(바쇼) → 處所, 곳
 101. 場面(바멩) → 마당, 판
 102. 場合 → 境遇(경우)
 103. 拂込(히라이꼬미) → 치러넣기
 104. 評價(효가) → 값치기, 매기기
 105. 表具(효구) → 衔接, 裱裝
 106. 不渡(후와따리) → 못치름, 안치름
 107. 便所(벤조) → 뒷간
 108. 眞面目(마지메) → 진실, 진실함
 109. 見出(미다시) → 제목
 110. 見横書(미쓰모리쇼) → 물목 받기, 物見
 111. 見本(미홍) → 본보기, 본색, 看色
 112. 土産(미야게) → 贈物, 封物
 113. 面識(멘시끼) → 顔面, 面分
 114. 毛布(모후) → 담요(毯~)
 115. 役割(야꾸와리) → 所任, 구실
 116. 遊興(유꼬) → 놀이, 놀음
 117. 行先(유끼사끼) → 가는 곳, 가는 데
 118. 用度(요도) → 쓰임, 내용
 119. 餘白(요하꾸) → 빈 데, 빈 곳
 120. 旅人宿(료진슈꾸) → 봉노房, 酒幕
 121. 裏議(린기) → 問議, 품(上申)
 122. 輪廓(린까꾸) → 大綱, 언저리, 둘레
 123. 割當(와리아떼) → 버름*
 ※ 여러 몫으로 고르게 벌려 주는 일
 124. 金錢(와리) → 돈
 125. 割引(와리비끼) → 값 내림, 벗김(하다)

일 본 식 → 한 국 식

126. 乗換(노리카에) → 바꿔타기
 127. 切下 → 낮춤
 128. 借款 → 외국빚
 129. 團地 → 모듬지대, 모듬땅
 130. 十八番* → 長技
 ※ 일본의 歌舞伎의 유명한 배우 一家 ‘市川家’에서 劇本을 18개 설정해 놓고 매에 따라 교대로 삼연한 데서 기인한 일본식 한자어다.
 131. 終車 → 막차
 132. 互角 → 伯仲
 133. 返禮 → 答禮
 134. 着信 → 來信
 135. 取引 → 去來
 136. 利子 → 길미
 137. 弱點 → 缺點
 138. 手形 → 어음
 139. 忌日 → 命日
 140. 上演 → 公演
 141. 返戻(반려) → 返還
 142. 主從 → 首從
 143. 達辯 → 能辯
 144. 論談 → 談論
 145. 夢解 → 解夢
 146. 色染 → 染色
 147. 論講 → 講論
 148. 樂勝 → 快勝
 149. 樂戰* → 好戰
 ※ 樂(즐길 락) 뒤에 이길 승(勝), 전쟁할 전(戰) 같은 글자가 따르지 못하는 것임.
 150. 男尊女卑 → 婦必從夫
 151. 男孫 → 孫男(손자)
 152. 女孫 → 孫女(손녀)
 153. 兒孫 → 子孫(아들과 손자)
 154. 異母 → 後母, 繼母
 155. 愛嬢 → 令愛
 156. 滑卷 → 소용돌이
 157. 盲養·孰養 → 孰眼
 158. 餞別 → 錢別(金)

일본식 → 한국식

- 159. 上面 → 表面, 外面
- 160. 運命 → 命運, 宿命
- 161. 益金 → 利益金
- 162. 會得 → 터득, 理解
- 163. 宴會 → 酒宴, 잔치
- 164. 押送 → 護送(죄인을 잡아보냄)
- 165. 御酌 → 酬酌(술을 따름)
- 166. 失禮 → 無禮
- 167. 相舅 → 查頓
- 168. 相宿 → 同宿(같은 여관에 묵음)
- 169. 赤電 → 공중전화
- 170. 朝晩 → 朝夕, 향상, 언제든지
- 171. 朝明 → 黎明, 동틀 무렵
- 172. 明日 → 來日, 다음날
- 173. 渾名, 雜名 → 別名
- 174. 跡形 → 形跡
- 175. 後金 → 殘金
- 176. 後先 → 前後, 앞뒤
- 177. 阿付 → 阿附, 阿諛(아첨)
- 178. 易易, 安易 → 容易, 쉬움, 편함
- 179. 偉觀 → 壯觀(불마한 광경)
- 180. 異鄉 → 他鄉, 外國
- 181. 逸足 → 疾走(재빨리 달림)
- 182. 居所 → 居處
- 183. 海豚 → 돌고래
- 184. 色男 → 美男(子), 好男(子), 情夫
- 185. 色女 → 美女, 情婦
- 186. 印行 → 刊行
- 187. 印章 → 圖章(도장)
- 188. 支拂(시하라이) → 치름, 치르기
- 189. 出迎(테무카에) → 마중, 영접(迎接)
- 190. 旅費 → 路資, 路費
- 191. 活字 → 鑄字
- 192. 家族 → 食口
- 193. 敷地 → 基地(址)
- 194. 殘高 → 殘額
- 195. 請負 → 郡給
- 196. 納得 → 理解, 諒解

일본식 → 한국식

- 197. 當番 → 當直
- 198. 合同駐車場 → 共同駐車場
- 199. 多*罪 → 大罪
- ※ 한국은 '크다'를 뜻하는 '大'자를 즐겨 사용하고 일본은 '많다'를 뜻하는 '多'자를 즐겨 사용한다.
- 200. 多大 → 大多
- 201. 多忙 → 奔忙
- 202. 多勢 → 大勢
- 203. 多食 → 大食
- 204. 多淫 → 大淫
- 205. 多識 → 博識
- 206. 多用 → 廣用(광용)
- 207. 多重 → 鄭重
- 208. 多衆 → 大衆
- 209. 短見 → 管見
- 210. 斷交 → 絕交
- 211. 單坐 → 獨坐
- 212. 短筆 → 拙筆
- 213. 短學 → 淺學
- 214. 党威 → 威党
- 215. 對見 → 對面
- 216. 大半 → 殆半
- 217. 大方家 → 名醫, 有名人
- 218. 大言 → 豪言
- 219. 代人 → 代身
- 220. 道德人 → 道學君子
- 221. 獨善 → 偽善
- 222. 讀破 → 舉讀
- 223. 豚兒 → 迷兒
- 224. 同夫人 → 夫婦
- 225. 併合 → 併吞
- 226. 條約 → 約條
- 227. 兪又容 → 刺容
- 228. ○○枚 → ○○張
- 229. ○○通 → ○○洞
- 230. 能記 → 意記(signifié)
- 231. 所記 → 音記(sigifiant)

- | | |
|--|---|
| <p>일본식 → 한국식</p> <p>232. 認識 → 理會* (알아서 깨달음)
 ※ 우리 先儒들이 ‘理會’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
 ‘理會’란 알아서 깨달음을 두고 일컫는 말임.</p> <p>233. 順路 → 通路(Route)</p> <p>234. 앓사리 → 깨끗이, 산뜻이, 말끔히</p> <p>235. 우동 → 국수</p> <p>236. 오뎅 → 꼬치</p> <p>237. 오바 → 외투(外套)</p> <p>238. 간즈메 → 통조림</p> <p>239. 스리 → 소매치기</p> <p>240. 바게스 → 양동이</p> <p>241. 히야까시 → 놀림, 희롱(戲弄)</p> <p>242. 벤또 → 도시락</p> <p>243. 몸빼 → 동자바지</p> <p>244. 가부시끼 → 나눠 갖기, 分配</p> <p>245. 스시 → 초밥</p> <p>246. 다꾸앙 → 단무지</p> <p>247. 돛부리 → 덮밥</p> <p>248. 모리소바 → 메밀국수</p> <p>249. 사시미 → 생선회</p> <p>250. 다마네기 → 양파</p> <p>251. 모찌 → 떡(찰싹떡)</p> <p>252. 야끼메시 → 볶음밥</p> <p>253. 노리마끼 → 김초밥</p> <p>254. 아나고 → 붕장어(뱀장어)</p> <p>255. 신병 → 신품</p> <p>256. 시마이 → 끝냄, 끝</p> <p>257. 방까이 → 만회, 되찾기</p> <p>258. 쇼우부 → 승부, 판가름</p> <p>259. 사꾸라 → 회색분자, 첩자</p> <p>260. 사바사바 → 협잡, 야바위</p> <p>261. 와이로 → 뇌물</p> <p>262. 간조우 → 셈, 계산</p> <p>263. 가오마담 → 얼굴마담, 안주인(다방, 여관)</p> <p>264. 죠우시 → 상태</p> <p>265. 시아게 → 끝손질, 마무리</p> <p>266. 곤색 → 감색, 청감색</p> | <p>일본식 → 한국식</p> <p>267. 소라색 → 하늘색</p> <p>268. 에노구 → 물감</p> <p>269. 히야시 → 채움</p> <p>270. 기스 → 금, 상처</p> <p>271. 고우바이 → 비탈</p> <p>272. 도꾸이 → 단골</p> <p>273. 유도리 → 여유</p> <p>274. 고펜 → 머리, 인두</p> <p>275. 후까시 → 부풀림</p> <p>276. 다이 → 대(臺)</p> <p>277. 구찌베니 → 입술연지</p> <p>278. 지지미 → 쫄쫄이</p> <p>279. 우와기 → 上衣, 옷옷</p> <p>280. 에리 → 깃</p> <p>281. 도꾸리(셔츠) → 긴목(셔츠)</p> <p>282. 세비로 → 신사복</p> <p>283. 시다 → 보조원</p> <p>284. 싱가라 → 새무늬</p> <p>285. 고방가라 → 바둑무늬</p> <p>286. 나카오리 → 증절모</p> <p>287. 자부동 → 방석</p> <p>288. 오봉 → 쟁반</p> <p>289. (사진)가꾸 → 액자</p> <p>290. 요오지 → 이부시개</p> <p>291. 와리바시 → 소독저</p> <p>292. 혼다테 → 책꽂이</p> <p>293. 시보리 → 물수건</p> <p>294. 다라이 → 대야</p> <p>295. 사라 → 접시</p> <p>296. (전기)다마 → 전구(電球)</p> <p>297. 스메끼리 → 손톱깎기</p> <p>298. 사시코미 → 꽃이(plug)</p> <p>299. 하꼬방 → 관자집</p> <p>300. 요비링 → 초인종, 벨(bell)</p> <p>301. 곤로 → 난로, 화로</p> <p>302. 正宗(마사무네) → 清酒</p> |
|--|---|

이 用語 對比에서 ‘結婚’이란 말을 日本式 한자어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三國 遺事의 동명왕 탄생 설화에 나오는 “我是天下之子, 今欲與河伯結婚”에서 ‘結婚’이란 말은 오늘날의 ‘남녀가 부부 관계를 맺음’이라는 뜻보다는 ‘婚事를 맺음’ 또는 ‘혼인을 맺음’의 뜻으로 쓰인 것이라 하겠다. 해모수가 柳花 아닌 河伯과 結婚하고자 함은 사돈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白虎通에는 “婚이란 저녁에 禮를 행하므로 혼이라 하고 姻이란 부인이 지아비에 의지하므로 姻이라 한다”고 하여 ‘婚姻’이란 말의 어원을 밝히고 있다. 즉, 저녁에 예를 올렸고, 女人이 남편에 의지하기 때문에 ‘婚姻’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은 ① 사위의 아버지를 婚, 며느리의 아버지를 婚이라 함, ② 사위 쪽에서 며느리의 집을 婚, 며느리 쪽에서 사위의 집을 姻이라 한다는 뜻이 있다. 그리하여 ‘혼인’이란 이와 같이 남녀 1:1의 결합이 아니요, 두 집안 간의 가족혼을 뜻한다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닌 ‘우리 남편’이요,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닌 ‘우리 아내’가 된 것이다. 그러기에 성숙한 남자가 인연을 맺어 한 가정을 이루는 일을 ‘結婚, 婚姻, 婚事, 婚禮’라 한다.¹³⁾

한국과 일본의 用語 對比에서 두 나라의 용어에도 많은 공통점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공통점은 다음 세 가지 성격을 지닌다.

① 두 나라 용어의 대부분이 漢字에 의한 단어 형성(word-formation)이란 사실이다. 두 나라가 같이 漢字를 사용하는 점이다.

② 이 對比에서는 들지 않았지만 두 나라 어학 용어의 대부분이 서양 언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다. 두 나라는 독자적인 언어학의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서양 언어학의 용어(술어)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③ 두 나라 언어학에 각자의 전통적 술어가 쓰일 경우에도 그 개념이나 의미는 현대적으로 재정립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밖에도 두 나라 말에는 조사가 있으며, 敬語와 卑語의 구별이 있는 점 등이다. 이러한 공통점이 생기게 된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은 한자를 공통 문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서양말을 번역하다 보면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들 용어 중 많은 용어(술어)를 일본으로부터 借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漢字 술어가 이런 식으로 차용되었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연계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 경우 일본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한자 술어를 차용하는 것은 별로 저항감 없이 수용했다는 점이다. 이 엄청난 일본식 한자어의 용어들을 이제 와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다. 이 많은 용어들을 단번에 극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통되는 용어의 많은 부분이 일본어학으로부터 借用되었다는 사실만이라도 분명히 理會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거나 번역되는 용어(술어)에 맹목적으로 일본 용어를 원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언어의 비교에서 차용어에 관한 연구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차용어를 어휘 비교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교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은 同源語(Cognate) 뿐이다. 그런데 종래의 한국어

13) 朴甲洙(1983), 우리말의 虛像과 實像, 한국방송사업단, 참고.

14) 宋敏(1984), 국어학과 일본어학의 술어 대비, 국어학 제13집.

——(1979), 言語의 接觸과 干涉類型에 대하여, 聖心論文集 제10집, 참고.

와 일본어의 비교는 동원어와 차용어의 구별에 소홀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원어와 차용어를 구별하는 기준은 음운·형태론적 특징이다. 그러나 古代 日本語의 경우 이런 기준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차용어와 동원어를 구별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¹⁵⁾

우리 국어 어휘 속에는 30여개의 외국말이 들어와 있고, 그 중 일본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 중 일본어 차용의 경우는 일본 군국주의의 69년 동안 일본어를 국어라 하여 배우고 익힌 것이 현재 남아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우리말에 없는 것을 필요에 의해서 차용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69년의 식민지 통치 기간 동안 일본식의 용어와 일본어의 영향은 우리 국어에 실로 엄청난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69년간은 우리나라가 근대화해야 할 시기였기에 우리의 학술어와 문화어는 거의 일본식 한자어로 채워졌다. 이는 우리의 일상 생활 용어에도 유입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한자 어휘에 큰 변모를 가져오게 하였다.

語彙 借用은 그것이 이루어진 정치·문화적 접촉의 성격을 反映한다. 그런데 일본식 한자어가 한국어에 들어 온 차용의 경우는 일반 어휘 차용의 양상과는 다른 성격이 있다. 이 일본식 한자어의 차용은 중국식 한자어와는 다르게 우리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차용하거나 수용한 것이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지 정책의 一環으로 강제·억지에 의해 수용된 것이다. 이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식 한자어가 우리 한국어에 들어온 것은 소위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로 언어의 通時的인 면에서 볼 때, 일본인이 우리 역사에 남긴 하나의 분명한 證據語가 된다. 이러한 증거어가 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어는 우리 국어와 일상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IV.

4.1. 지금까지 다룬 용어들을 우리는 아무런 비판과 검토 없이 그대로 慣行대로 사용해 온 것이다. 이들 용어는 너무도 뿌리 깊게 언어의 사회성을 획득하고 있어서 쉽사리 고치기가 어렵다. 본고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개정되어져야 할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慣行대로 記述되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용어들이 갖는 개념이나 그 역사적 사실의 뜻을 분명히 알았으니, 지금부터라도 후세를 위해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하겠다.

4.2. 우리 역사에서는 自主的이고 主體的 정신이 요구될 때마다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인식이 새로왔다.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訓民正音を 만드신 것도, 日本 軍國主義 때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다가 옥고를 치른 분들의 정신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지난날 우리가 겪은 69년간의 日本 軍國主義 때의 [소위 日帝植民地時代] 산물이며 남은 찌꺼인 이 용어들을 一掃하거나 拂拭해야 한다는 투철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투철한 국어의식과 역사의식 내지 민족의식을 갖고 獨自的으로 우리 역사와 국어를 재평가하고 재조명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15) 李基文(1973),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 비교에 대한 재검토, 어학연구 9권 2호, pp.12~13, 참조.

4.3. 지금까지 다룬 용어들에 각별히 유의하여 일본식 용어를 버리고 한국식 용어들로 改正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서슴지 않고 고쳐야 한다. 잘못을 알고 그냥 두는 것은 우리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時代의 변천에 따라 말도 변한다. 그래서 말은 유기체다. 말도 나서 죽는 신진대사를 한다. 이러한 언어의 변화에서 말을 만들어내고, 말을 사용하는 우리들은 말의 창조자인 것이다.

參 考 文 獻

- 姜信沆(1983), '外來語의 實態와 그 受容對策', 韓國語文의 諸問題, 一志社.
- 國語學會(1984), 국어학 제13집, 국어학회.
- 金敏洙(1984), 國語政策論, 塔出版社.
- 金容沃(1986), 여자란 무엇인가, 통나무.
- 문교부(1948), 우리말 도로 찾기, 문교부.
- 朴甲洙(1984), 우리말의 誤用과 醇化, 한국방송사업단.
- (1984), 國語의 表現과 醇化論, 志學社.
- (1983), 우리말의 虛像과 實像, 한국방송사업단.
- 朴殷植(1946), 韓國痛史, 三乎閣.
- 배양서(1976), 한국의 래어사전, 광문사.
- 손인수(1985), 교육사 교육철학연구, 문음사
- 宋 敏(1984), '국어학과 일본어학의 슬어대비', 국어학 제13집, 국어학회.
- (1979), '言語의 接觸과 干涉類型에 대하여', 聖心論文集 제10집.
- 愼鏞廈(1986), '解放前後 韓國人の 歷史 意識', 신동아 통권 326호.
- (1986), '日帝植民地時代의 性格과 遺産' 신동아 통권 323호.
- 申采浩(1948), 朝鮮上古史, 종로서원.
- 申滢植(1981), 三國史記研究, 一潮閣.
-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集文堂.
- (1987), '漢字語의 構造와 그 造語力', 국어생활 제8호, 국어연구소.
- 呂增東(1986), 韓國歷史用語, 時事文化社.
- 李江魯(1987), '漢字語의 起源의 系譜', 국어생활 8호, 국어연구소.
- 李光來譯(1987), 말과 사물(미셀 푸코著), 민음사.
- 李基文(1986), '借用語 研究의 方法',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1983),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휘비교에 대한 재검토', 어학연구 9권 2호. 서울대어학연구소.
- 李基白(1973), 韓國史新論, 一潮閣.
- 李佑成, 姜萬吉(1979), 韓國의 歷史認識(上·下), 창작과 비평사.
- 李炫熙(1986), '日敎科書 歷史歪曲을 告發한다(上·中·下)', 동아일보 1986. 7. 14~16. 기사.
- 李熙昇(1982),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趙東杰(1986), '韓國現代民族主義와 民衆의 역할', 신동아 통권 323호.
- 한국교열기자회 편저(1982), 국어순화의 이론과 실제, 一志社.

허 응(1981), 언어학, 샘문화사.

三國史記, 金鍾權譯, 先進文化社, 1960.

三國遺事, 崔南善, 三中堂書店, 1946.

Zusammenfassung

Revision zur Koreanischen Spracherziehung

Choe, Gyu-Il

Wir müssen angesichts einer historischen Zeitspanne einige Koreanische Ausdrucksformen überdenken und verändern.

In diesem Aufsatz wird folgendes dargelegt: Unter der Japanischen Militärherrschaft wurde die Koreanische Sprache willkürlich verwischt bzw. mit Japanisierten Ausdrücken durchsetzt.

So ergibt sich für die Koreanische Spracherziehung heute die Notwendigkeit einer Verbesserung. Diese betrifft eine Reihe von japanisch-chinesischen Ausdrücken.

Bis jetzt werden diese sprachlich falschen Begriffe in der Koreanischen Sprache unreflektiert, zum Teil falsch verwendet. In Kenntnis der korrekten Bedeutung müssen von jetzt an diese Begriffe im richtigen Sinn unterrichtet und gebraucht werden.